

토 의

### 3. 학교보건사업에서의 환경운동의 방향 및 역할

김 지 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과장

학교는 노력 여하에 따라 어떤 사업 효율의 극대화를 거양할 수 있는 작은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습관을 생활화 시켜줄 경우 그에 대한 효과는 학생 자신들은 물론이요, 자연스럽게 가정까지 연계 파급되고 나아가 사회전체가 동화될 수 있는 기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이때, 학교보건행정의 입장에서 학교가 또한 학생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환경보전사업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학교보건사업에서의 환경보전사업은 크게 대내적인 사업과 대외적인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내에서의 주요한 환경보전사업은 학생 및 교직원들이 보다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한 학교내 환경문제로는 적절한 채광과 조명, 소음발생원의 효과적 방지, 겨울철 난방에 따른 공기 오염문제, 안전한 음용수 공급,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교실에서의 조도는 최소한 200 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선진국의 교실조도 기준이 300 Lux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는 150 Lux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는 새로운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 학교에 대해서는 '94년 현재 67개교에 방음벽을 설치한 바 있으며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공기오염문제는 특히 겨울철 난방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벽걸이식 가스난방기구를 설치하여 난방을 하고 있는데, 난방기구가 학생들

의 손이 닿지 않도록 벽면 상부에 설치되어 있어 공기대류의 성질상 신체의 상부에만 주로 온기를 느끼는 등 열효율의 문제가 있고, 이중창 설치로 교실이 거의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결핍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어 수업 중간과 수업 후 모든 창문을 열어 일정시간 환기를 시켜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난방은 궁극적으로 라디에이터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수질관리는 도시상수도물 음용하는 경우 수도관의 부식이나 학교저수탱크의 오염 등에 대한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구성원들이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물의 낭비를 줄이는 생활양식의 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실천 가능한 환경운동은 쓰레기 관리를 통한 자원재활용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93년부터 매년 유치원·초·중·고 각 1개교씩을 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실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각급학교에서의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소비의식을 가지고 절약과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자동판매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일회용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도록 조치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학교내에서의 환경보전운동은 궁극적으로 보다 쾌적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며 향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대외적인 환경보전활동은 학생들에게 국토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이들이 직접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여 피부로 문

제점을 느끼고 "아! 이래서 환경보전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환경보전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는 하수 종말처리장의 견학을 통해 수질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와 더불어 "맑은물 되찾기 (샐강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양재천, 중랑천, 탄천 등 51개 수계와 인접한 학교 543개교가 담당구역을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하천을 청소하고 학생 스스로 수질을 측정하여 오염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간이 수질 검사기를 이용한 수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학교별로 자연보전반, 환경보전반, 특별활동 환경반, 어머니 환경교실, 환경봉사단 등의 특별활동반을 결성하여 휴지 안버리기, 쓰레기 줄이기, 재생용품 사용하기, 삼푸, 합성세제 등 환경오염물질 사용 억제하기, 환경보전 캠페인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산림청의 "녹색교실"과 삼성건설의 "그린캠프" 등에 참여하여 현장학습을 통한 환경보전 인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한데 다행히 '95년부터 적용되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국민학교는 관련교과목에 환경내용이 부분

적으로 강화되고, 중학교는 선택과목에 "환경" 과목이 신설되어 전학년 주당 1-2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고등학교는 교양선택과목으로 "환경과학", "환경보전", "환경기술"의 독립교과목이 신설되었고, 계속적으로 환경교육 자료집과 환경교육 우수사례집 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조성에 따라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조직적으로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확고히 교육시킬 수 있으리라 보며 이에 따른 효과도 높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급속한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반대급부로 수질오염, 대기오염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병행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였던가에 대해서는 보건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정의 시시비비를 떠나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를 바로잡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환경저가 환경부로 승격하게 되어 앞으로는 환경정책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개개인인 환경보전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속에서 환경을 사랑하고 아낄때, 모든 하천에서 물고기가 노닐고 우리의 자랑인 쪽빛 하늘을 되찾아 사람과 자연이 조화된 쾌적한 환경이 빨리 되돌아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